

다도해의 보석 섬

12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꽃 사라진 꽃섬... 부추꽃만 옛명성 외로이



쉬엄쉬엄 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조성된 산책로(길이 1850m).

그 섬은 온통 꽃으로 가득할 줄 알았다. 힘겨나 쓰는 젊은이들은 커녕 가꿀 사람도 찾기 힘든 게 요즘 섬이라고 하지만, 제멋대로 피어난 야생화들이 밭 디딜 틈 없이 지천으로 피어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래도 '꽃섬'인데, 영화 꽃섬(감독 송일근)의 촬영지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모든 상처와 슬픔, 불행은 잊게 해주는 땅'이라며 찾아가는 섬이니 이름값은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다.

찰부선에 올라탄 뒤부터 30분 남짓 기다리면 동백꽃이 섬 곳곳을 붉게 물들이며 떨어질 때쯤 겨울이 가고 진달래가 봄물을 짙어대다 지치면 원주리가 여름을 물들이고 순백의 구절초(九節草)와 흰 부추꽃이 가을바람에 몸을 맡긴 채 하늘거리는 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상상이 깨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下花島·면적 0.56km)는 35명의 주민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작은 섬이다. 지금은 백야대교로 이어졌지만 백야에서 다시 40분 배를 타고 가야 닿는 섬 속의 섬으로, 70세 이상 주민들이 절반을 웃도는 섬이다.

모처럼 찾아온 외지인들이 반가웠을까.

마을 경로당에 모인 주민들은 소주잔을 권하며 섬 유래를 들려준다. 지금껏 먹여살린 자식들도 다 커버린데다, 농사짓기에 힘이 부친 노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냈다.

주민들은 동백꽃, 흰 꽃잎이 신선보다 더 돌보인다는 선모초(仙母草·구절초), 진달래 등 꽃이 밭 디딜 틈 없이 섬을 덮고 있다고 꽃섬(花島)으로 불리운 섬의 명칭을 알려준다.

백야도를 거쳐 하화도 서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화도(上花島·면적 0.73km)가 꽃섬이라면 하화도는 아래꽃섬이라고 불리는 어원도 전해준다. 작지만 은근히 크고, 아름다운 볼거리도 일러준다.

가장 궁금한 것. 꽃섬인데, 꽃이 어디에 많냐는 물음에 이장 임화용(64)씨는 "이름만 꽃섬이지, 예전과 달리 지금은 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개봉된 영화(꽃섬)가 히트를 쳤다면 자치단체를 비롯, 민간업자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꽃이 만발한 진짜 꽃섬으로 바뀌지 않았겠냐며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젊은층들이 빠져나간 것처럼 섬에 지천으로 피어있던 자랑거리인 동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섬을 찾았던 외지인들이 섬

지천으로 피던 동백 외지인들 손길에 실종 백야도서 배로 40분...주민 35명 '섬속의 섬' 산책로 정비·꽃밭 조성 테마섬 개발 기대

을 빠져나가면서 하나둘 가져간 게 한몫을 했다고 한다. 아예 사람 손 닿지 않는 섬 주변 절벽에 있던 풍란도 귀신같이 캐내간다는 것이다.

반면, 남아있는 꽃도 있다고 했다. 흰 부추꽃은 섬 명성을 지키겠다는 듯 곳곳에 펼쳐져 있다. 수십년간 억척스럽게 지게지고 소를 끌고 경운기도 다니지 못하는 땅을 깎아내 일군 다랑지밭(0.29km)도 하얀 부추꽃 일색이다. 먹고 살 것 찾아, 자식을 가르치겠다며 주민들이 섬을 떠난 뒤 남은 집터에도 부추꽃이 대신 메웠다. 주민들은 "밭일하기 힘이 부친 노인들이 재배하기 알맞은 게 부추"라며 "자식들 다 키운 마당에 용돈 벌이로도 제격"이라고 했다.

봄에 나오는 첫 부추는 남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채소인데다, 하화도 부추는 향이 좋기로 유명해 인기가 높다.

부추가 예전부터 섬 주민들의 주소득원을 차지했던 것은 아니다. 작은 섬이지만 지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만 해도 김 양식으로 많은 돈을 벌며 '간지지가 천원짜리를 물고다닐 정도'로 부유한 마을이라고 했다.

태풍과 바다바람 피해 아찔막한 언덕 아래 딱따파다 모여 산 주민들만 100여명에 이르고, 곳곳에 휴경한 밭이 넘쳐나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섬인데도 북적했다고 한다. 지난 1987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20kW 짜리 태양광발전소(현재 60kW)가 들어서기도 했다.

임 이장은 "당시 하화도 김 맛은 어디에 내놔도 못 따라올 정도로 맛있어 비싸게 팔렸고 그러다보니 주민들 생활도 풍족했다"면서 "김 수확철에는 마을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서 나온 연기가 온 섬에 활싸일 정도로 자욱했다"고 회상했다.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산책로를 걷다보면 탁 트인 에머랄드빛 바다와 점점이 떠있는 섬이 한 눈에 들어온다. 주민들이 심어놓은 흰 부추꽃 너머로 웅기충기 모여있는 마을과 웃꽃섬으로 불리는 상화도가 보인다.

풍족했던 섬은 그러나 점차 작아졌다. 어장의 경우 수온이 상승하면서 김 양식이 예전만 못해지자 자연스럽게 물으로 빠져나가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젊은층들이 돈벌이를 찾아 육지로 나가면서 경운기도 쓸 수 없는 밭은 휴경지로 바뀌었다. 고구마나 보리를 재배하던 밭에는 힘이 부친 노인들에게 적합한 부추가 심어졌다. 바다에서도 김 대신, 톳밭로 문어를 잡는 주민들이 생겨났고 그나마 큰 돈벌이가 아닌, 용돈 벌이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절초도 오랜세월 변하지 않고 섬에서 곳곳에 피어나고 있는 꽃이다.

'구절초꽃 피면은 가을 오고요/구절초꽃 지면은 가을 가는데/하루해가 다 저문 저녁 강가에/산 너머 그 너머 검은 산너머/서늘한 저녁달만 떠오릅니다/구절초꽃 새하얀 구절초꽃에/달빛만 하얗게 모여듭니다/소적새만 서럽게 울어합니다'(김용택 시인의 '구절초꽃' 중에서)

높이 118m에 불과한 아찔막한 언덕을 따라 펼쳐진 산책로(길이 1830m)를 따라 심지 않아도 피고 지는 구절초는 "가을이면 부추꽃과 어울려 섬을 하얗게 만들어 장관"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줄기 끝에 한 송이만 피는 꽃잎이 신선보다 더 돌보인다고 해서 선모초(仙母草)로도 불린다.

작은 섬이지만 영화 꽃섬에 이어 최근 '이끼'(감독 강우석) 촬영지로 소개된데다, 다도해 풍광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수채화같은 산책로가 관광객 입에 오르내리면서 외지인 발길이 잦아들고 있다.

주민들의 바람도 크다. 이제 더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도시 생활로 지친 사람들을 넉넉하게 보듬을 수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꽃섬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박준영 지사가 약속했던 섬 주변 동굴까지의 산책로 정비와 꽃밭 조성을 서둘러 달라는 얘기다.

임화용 이장은 "탁 트인 다도해 절경, 기암괴석이 즐비한 해안선과 푸른 산책로가 어우러지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으로 바뀌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라와 나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사랑을."

김대중 자서전

김대중 자서전 최후집 대피

- **최후집** : 백만 원
- **최후집** : 1권 100페이지
- **최후집** : 2권 100페이지
- **최후집** : 3권 100페이지
- **최후집** : 4권 100페이지

HAYAN 신인